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110 주년 표어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데살로니가전서 5:18)



shinacho2003@daum.net (담당자)

재일대한기독교회 / 일본기독교단

2015 년 평화 메시지

일본기독교단 총회의장 石橋秀雄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조 중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 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예레미야 22 장 3 절)

금년 2015 년은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쟁 패전으로부터 70 년이 됩니다. 작년에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은 선교 협약 80 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일본의 평화 실현과 사람들의 생명이 존중되어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실현을 기도하면서 상호 협력 관계를 더욱 더 심화시켜 나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이 가능한 나라임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불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 일본이 한국과 중국 등으로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주의의 잘못을 사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통하여 평화와 평등과 공생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평화로운 사회 실현을 향하여 >

지금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해외 전쟁에 파견하여 군사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안보 관련 법안을 각의(閣議) 결정하고 법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고 한 일본 헌법 제 9 조를 어기는 것이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삶의 위협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패전으로부터 70 년이 되는 올해 우리는 군민(軍民)을 합쳐 20 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오키나와전(戰)을 기억합니다. 일본은 독립국가였던 류큐(琉球) 왕국을 침략 통치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본토의 방패로 이용했습니다. 그 오키나와는 패전 후부터 오늘날까지 주일 미군 기지의 압도적 집중이라는 무거운 부담을 강요당하여 지금은 미군 후방(普天間) 비행장을 헤노코(辺野古)로 이설(移設)하는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나라의 무서운 ‘차별성’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평화 실현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상기의 법안 제정에 반대함과 동시에 미군 후방(普天間) 비행장의 헤노코로의 이전 계획 철폐를 요구합니다.

< 헤이트 스피치가 없는 사회를 향하여 >

“혐중 증한(嫌中憎韓)”의 흐름 속에 있는 헤이트 스피치를 둘러싼 상황은 이전과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일반인들의 의식 속에 정착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헤이트 데모 집회는 지금도 일본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헤이트 스피치 대상은 한국과 중국을 넘어서 오키나와, 아이누, 원전 사고 피해자, 이슬람교도, 피 차별 부락(部落), 장애인, 생활 보호 수급자(受給者) 등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은 계속해서 “혐중 증한”을 부추기는 기사와 프로그램을 보도하고 있으며, 출판사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는 차마 볼 수 없는 인종 차별적 표현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6 년에 유엔의 인종 차별 철폐 협약에 가입했습니다만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과 국내의 인권기관 설립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움직임은 보수 정치 세력과 결합하여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언론 탄압”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금년 11 월에 “함께 살면서 함께 살리는 일본을 향하여 - 일본과 세계가 연대하여 만드는 일본의 정의와 공생”을 주제로 제 3 회 “마이너리티 문제와 선교” 국제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에서의 인종 차별의 실태를 밝히며, 차별 철폐를 향하여 일본과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힘을 합쳐 나갈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이 지켜지는 사회를 향하여 >

2011 년 3 월의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후의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는 것을 제 1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사성 물질 확산 피해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은폐되었으며 사고가 난 며칠 후에는 피폭 기준치와 식품 방사능 기준치가 큰 폭으로 올라 갔습니다. 실제로 방사선량이 상당히 높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이주(移住)나 피난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과 스트레스로 인한 수 많은 건강 피해가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보도는 최소화되고 지금은 카고시마(鹿兒島)의 센다이(川内)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 동경 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어 “원전 사고는 과거의 이야기” 처럼 각지의 원전들이 재 가동을 향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피폭국인 일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와 더불어 “후쿠시마” 에서 일어난 사고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면서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이 지켜지는 사회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중부 지방회> 치쿠마비전전도소 최종복목사 위임식



5월 12일 (화) 오전 11시, 치쿠마 비전전도소에서는 최종복 목사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위임식 예배는 임시당회장 최화식목사 (나가노교회) 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광세장로 (나고야교회) 의 기도, 박양자장로의 성경봉독, 중부 지방회 연합성가대 찬양 후에 부총회장 김성제목사 (나고야교회) 가 “갈릴리에서 시작된 선교”(마태복음 28:16 ~ 20)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어서 지방회장 김인과목사 (기후교회) 의 사식으로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흥영환목사 (전, 지방회부회장) 와 전병옥목사 (나고야미나미교회) 가 권면을 하고, 홍간사 김병호목사, 강재식목사 (구미 등대교회, 최목사 파송교회), 권운일목사 (지방회부회장) 가 각각 축사하였다.

특히 예배 중에는 치쿠마 비전전도소 설립과 목사 위임식까지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나가노교회 성도들과 최화식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치쿠마 비전전도소는 2012년 2월 5일 전경희씨 집에서 나가노교회 신도들과 최화식 목사가 나가노 지역에 3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여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다가 작년 8월 20일 최종복 목사가 부임하여 목회를 해 왔다.

최목사는 1960년 9월 9일 강원도에서 출생하여, 1995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충남 노회 (통합) 에서 창동교회를 섬겼다. 2004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본 총회 오사카 평강교회, 오사카 제일교회에서 사역하였다. 그리고 잠시 일시 귀국하였다가 일본 선교사로 재파송을 받았다.

가족으로는 장현숙 (사모), 하림 (여, 한동대), 예진 (여, 초 5), 하진 (여, 6), 예원 (여, 3) 이가 있다.

(보고 : 최종복)

<관서지방회> 제 44 회 이슈람 기도 수양회

5월 11-12일, 비와코 (琵琶湖) 리트리트 센터에서는 전도부 주최로 고기홍목사 (高基洪, 서울 평강교회) 가 감사로 나서 “기도와 치유” (야고보서 5:16) 라는 주제로 제 44 회 이슈람 기도 수양회가 개최되었다.

전체 진행은 송남현목사 (오사카제일교회) 가 담당하여 여러 성도들이 기도와 찬양과 반주, 통역과 안내 등으로 은혜롭게 봉사하고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관서지방 성가대 연합회가 강의 시간에 앞서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담당하여 매 시간마다 은혜로운 찬양과 더불어 유익한 집회로 이어졌다.



개회예배는 관서지방회장 김필순목사 (사카이교회) 가 “발을 가는 마음” (눅 8:4-8)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에 고기홍목사가 “승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여호수아 15장)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이어서 김견강권사 (교토교회) 와 김명미집사 (후세교회) 가 각각 간증한 후에 신도들의 기도로 이어졌다.

저녁식사 후에는 고목사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요한복음 6:35)” 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를 한 후에 참가자 전원이 분단으로 나뉘어 뜨겁게 기도하였다.

둘째 날은 김무사목사 (오사카니시나리교회) 가 “의인의 기도” (야고보서 5:13-16) 라는 제목으로 아침기도회 설교를 한 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나가서 야외 묵상을 하고 세 번째 강의로 이어졌다. 이번 수양회에는 모두 86 명이 참가하였다.

폐회예배는 조영철목사 (오사카북부교회) 가 “기도와 치유” (야고보서 5:16)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보고 : 송남현)

※ 9월호 휴간 관계로 한국어와 일본어 번역 기사는 중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9月号休刊のため、韓国語と日本語の翻訳記事は、総会のホーム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10名様～200名様の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グ・カヤ gum・舞踊】・韓国語講座・各種こどもクラス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グ】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 2-5-5 ☎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 3-14-15 ☎ 06-6981-0782

税込	平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500	¥6,000
ダブル	¥10,500	¥9,700
トリプル	¥13,500	¥12,500
朝食・コーヒー ¥200 (宿泊者価格)		

판결문

재일대한기독교회 치리위원회는 성경, 재일대한기독교회 헌법, 규칙, 계규, 재판 규정에 근거하여 교회의 신성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하의 주문과 같이 2014 년 12 월 29 일부의 판결을 변경한다.

제소인 :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 장로 전삼량, 김일환
항소인 :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 담임목사 김해규

주문 (징벌 내용) 항소인 김해규를 [면직] 에 처한다.

죄로 인정되는 사실 2014 년 12 월 29 일부 판결문 가운데 [죄로 인정되는 사실] 기재와 같다.

징벌의 이유

1. 본 위원회는 2014 년 12 월 29 일부 판결 (이하, 「본 건 판결」 이라고 함) 에서 본 판결에 기재되어 있는 죄로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아래의 조건을 첨부하여 항소인 김해규를 「정직」 처분을 했다.

기

이하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죄문을 작성하여 2015 년도 동경교회의 공동회의, 관동지방회 정기총회, 2015 년 4 월에 개최 예정된 총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것

- 1) 2013 년 4 월 7 일에 개최된 임시공동회의에서 재일대한기독교회 헌법에 규정되지 않는 장로신임투표를 강행하여 전삼량장로와 김일환 장로의 장로시무 해임에 이르게 한 것은 총회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 2) 위법한 장로신임 투표에 근거하여 전삼량장로와 김일환 장로를 시무장로로서 인정하지 않고, 항소중의 임백생장로를 시무장로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동경교회 성도 사이에 불신과 혼란을 초래한 것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 3) 동경교회의 담임목사이며 당회장이라는 교회의 책임자로서의 직책에 있으면서 관동지방회 및 총회의 부담금 납부를 등담시하여, 그로 인한 관동지방회와 총회에 심각한 재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2. 그러나 항소인 김해규는 본건판결을 일체 받아들여려 하지 않고 상기된 3 가지 조건에 따른 일시까지 사죄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3. 그 뿐만 아니라 항소인 김해규는 관동지방회가 임시당회장으로서 결의한 임태호목사, 그 후임의 김 건목사 등을 임시당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태호임시당회장이 동경교회의 설교를 위해서 파견한 김병호총간사가 교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성도들이 실력으로 방해한 행위를 전혀 제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4. 또한, 항소인 김해규는 본 건 판결에 의해 당회장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년 1 월 18 일, 스스로 의장으로서 동경교회의 공동회의를 소집했다.
5. 더욱이 항소인 김해규는 2015 년 3 월 19 일, 동경지방재판소에 대해 동경교회의 대표역원으로서 김 건목사가 동경교회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도 들어왔다고 해서 김 건목사 및 재일대한기독교회를 채무자로 하는 출입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심리담당 재판관으로부터 김 건목사가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증거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자 같은 해 6 월 25 일부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6. 본 건 판결은 항소인 김해규가 동경교회의 질서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한 반성을 촉구한 것인데 항소인 김해규는 본건판결이 제시한 조건을 실천하여 질서회복을 위한 노력 및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 항소인 김해규는 재일대한기독교회에 소속한 목사로서 본 건 판결에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판결이 무효라고 하여 일체 따르려 하지 않았고, 상기와 같이 불성실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포괄단체인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의함에 따르지 않고, 대립관계를 견지하고, 동경교회 질서를 회복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7. 따라서 본 치리위원회는 동경교회, 관동지방회,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성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본 건 판결에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본 건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는 바이다.

2015 년 7 월 2 일

재일대한기독교회 치리위원회 위원장 김성제, 위 원 김필순 조영철 나카에요이치 강부자 김성원 백승호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조종래, 서 기 이근수, 총간사 김병호

상기의 판결문 원문은 일본어입니다.
한국어는 일본어 번역본임을 알려 드립니다.

一財団法人 クリスチャン協会・企業検索サイト
レホボト・ジャパン
Christian Calling Search Site

http://www.rehoboth.jp

Tel 090-3945-3373
e-mail info@rehoboth.jp
住所 兵庫県芦屋市朝日ヶ丘 10-35-55

レホボトジャパン 検索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 UCCJ/ KCCI >

第48回 宣教協力協議会



6月29日(月)～30日(火)、静岡県熱海にて、「両教会の宣教課題と宣教協力～一致してヘイトスピーチを考える～」という主題で、第48回在日大韓基督教会と日本基督教団との宣教協力委員会が開催された。

開会礼拝は、石橋秀雄牧師(議長)が「キリストに集中する」(エフェソ2:13～18)と題して説教した。引き続き、両教団の総幹事が出席者の紹介後、前会議録と実務者会記録を承認し、両教会の紹介及び課題と活動が報告された。

夕食後は、雲然俊美牧師(書記)の司会で、佐藤飛文氏(歴史共同研究委員)が「排外主義と歴史修正主義がなぜ広がっているのか?」、金成元長老(歴史編纂委員長、KCC館長)が「両教会の宣教課題と宣教協力～一致してヘイトスピーチを考える～」と題してそれぞれ発題した。

翌日は、「発題を受けて」の討議と「2015年平和メッセージ」について議論、「マイノリティ国際会議」の概要と進行状況とプログラムの説明、「教職者の相互受け入れについて」、「歴史共同研究委員会について」協議がした。

閉会礼拝は、副総会長金性済牧師が「レボトの井戸」(創世記26:15～25)と題して説教した。

(報告:編集部)

第53回 定期総会 召集公告

在日大韓基督教会「第53回定期総会」を総会憲法第13章(総会)第60条(定期総会組織)、第61条(定期総会召集)と総会規則第2章(定期総会)、第3章(総代)第3条(総代及び準総代)に基づいて次のように召集します。

- ・ 主題: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의 장막을 이 땅에 펼치자 (마태복음 5:19)
「いのちと平和の神の幕屋をこの地に広げよう」(マタイ 5:19)
- ・ 日程: 2015年10月11日(主日) 19:00～13日(火) 17:00
- ・ 会場: 在日大韓基督教会 大阪教会
大阪市生野区中川西2-5-11 (☎0667123377)

※「総代・準総代の交通費と宿泊費は各地方会が負担し、女性会と青年会代表はその機関が負担する」(総会規則第3章第3条4項)。

2015年8月1日

在日大韓基督教会 総会長 趙重来
書記 李根秀

< 관서지방회 > 오사카교회

장립 94주년 감사, 장로 장립 등

5월 10일(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사카교회에서는 교회 장립 94주년을 맞이하여 “신앙계승으로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자”는 제목으로 고익종목사(대한 예수교장로회 광명 흰돌교회, 고촌자장로 오빠)가 강사로 나서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어서 오후 4시부터는 고촌자장로 장립(지방회장 김종현목사 사식), 김옥미, 김행자 권사 취임, 강두련 명예장로 추대식과 최아사오 명예전도사 추대식을 거행하였다.

예배는 박성균목사가 기도한 후에 김금순장로가 성경봉독을 하고, 오전에 이어서 고익종목사가 “우리의 믿음을 나누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고촌자장로는 1954년생으로, 1981년에 오사카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1987년부터 집사로 봉사하다가 2002년에 권사로 취임하여 모범적인 섬김으로 장로로 선출되어 장립되었다. 자녀는 3남이며, 교포교회 윤선박목사가 차남이다.

김옥미권사는 1964년생이며, 오사카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1994년부터 집사로 봉사해 왔으며, 김행자권사는 고(故) 김용추장로의 3녀이며 본 교회 황유석장로의 부인이다.

또한 명예장로로 추대받은 강두련장로는 1990년에 안수집사, 1993년에 장로로 장립되어 21년 간을 봉사해 왔다.

최아사오 명예전도사는 1986년부터 봉사하였으며, 강두련장로의 부인이기도 하다.

권면과 축사는 총간사 김병호목사, 조영철목사, 김필순목사, 유정근장로가 각각 봉사한 후에 양형춘목사가 축도하였다.

오사카교회는 금번의 여러 임직식을 통하여 세대교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전도사 양성을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재인식하였다.

(보고: 정연원)

<お知らせ>

・<福音新聞 9月号>: 休刊いたします。

・<總會事務局夏休み>

8月10日(月)～14日(金)